

가마도 신사

가마도 신사는 연애운과 인연맺기에 효험이 있는 여신인 다마요리비메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신사에는 교우 관계의 행복과 행운을 기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7세기부터 12세기까지 다자이후가 규슈의 행정 중심지이자 국제 관계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당시, 일본의 사신들은 아시아 대륙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신사의 튼튼한 기둥과 길게 휘어져 경사진 모양새의 지붕은 편백나무를 사용했는데, 동일한 재료가 2013년 혼텐(신을 모시는 건물)의 수리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경내에는 봄이 되면 벚꽃이 피고 가을에는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듭니다.

호만산은 가마도 신사의 뒤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다자이후의 북동쪽에 위치하는데, 악귀는 북동쪽에서 찾아온다고 믿었던 옛 전통에 따라 악귀로부터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호만산은 슈겐도(지구력과 금욕이라는 극단적인 수행을 동반하는 산악 신앙에 기초한 민간 신앙)의 수행자들에게 있어 전통적인 수행 장소이기도 합니다.